

자료배포일 2026년 8월 19일
자료배포처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문의	hey@svsfund.org info@svsfund.org
홈페이지	svsfund.org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 7년, 사회투자 도매기금 232억원이 1,885억원 규모 프로그램으로

「사회투자 도매기금 운용 성과 보고서(2019~2025)」 발간... 사회적 투자자
121곳에서 813억원 참여, 15개 전문 중개기관 지난 4년 연평균 23.7% 성장

◆ 3대 핵심 과제 추진

- ① 협동조합, 비수도권, 사회목적 프로젝트 등 금융 사각지대 대응
- ② 지역 (예비)중개기관, 피투자기업 등 참여주체 역량강화
- ③ 지자체기금, 공익법인, 자조기금 등 사회적 투자자 확대

◆ 포트폴리오 운용 성과

- ✓ (도매기금 모델의 유효성 입증) 7년간 55개 프로그램에 232억원을 할당하여 총 1,885억원 규모로 확장, 양호한 회수율 기반 선순환 구조 확인
- ✓ (임팩트와 수익 균형 포트폴리오 구성) 전제 자산의 2/3를 낮은 수익률 영역에 배분하면서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확보

◆ 사회연대금융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

- ✓ (다양한 사회적 투자자의 등장) 총 121곳이 투자자로 참여, 813억원의 신규 사회적 투자자 자금을 동원
- ✓ (사회적 금융 전문 중개기관의 성장과 분화) 재단 출범 초기부터 협력한 15개 전문 중개기관의 운용자산(AUM)은 4,882억원(2025년)으로 4년간 연평균 23.7% 성장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사장 하승창, 이하 SVS)은 8월 19일 사회투자 도매기금 운용 7년(2019~2025년) 성과를 종합한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SVS는 사회연대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은행권·상호금융기관·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출연을 받아 2019년 1월 설립된 사회투자 도매기금 운용기관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사회목적 프로젝트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기보다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흘려보내는 '도매' 방식으로 사회적 금융 생태

계를 키워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SVS는 지난 7년간 55개 프로그램에 232억원(집행액 228억원)을 할당했다. 이 자금은 정부·지자체 기금·금융기관·공익법인 자금과 새롭게 등장한 121곳(기관 77곳, 개인 44인) 투자자의 자금과 결합해 총 1,885억원(결성액 1,745억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으로 확장됐다. 8.1배에 이르는 승수(레버리지) 효과다.

<한눈에 보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7년 주요 성과>		
구분	수치	내용
도매기금 공급액	232억원	55개 프로그램에 할당(집행액 228억원)
결합 투융자 규모	1,885억원	정부·지자체·금융기관·공익법인 등 자금 결합
승수(레버리지) 효과	8.1배	SVS 자금 1원당 8.1원 규모로 확장
참여 투자자	121개	기관 77개, 개인 44명 참여
사회적 투자자 자금	813억원	정책성 도매자금(56.9%)* 제외분
파트너 중개기관	23개	초기 협력 15개 기관 AUM 연평균 23.7% ↑
피투자기업 수	2,048개	2025년 기준, 연평균 18.4% ↑
평균 만기/ 평균 수익률	6.6년/ 4.3%	임팩트-수익 균형 포트폴리오 운용
누적 회수 원금	85.5억원	납입액 대비 37.5%, 회수 수익 6.2억원

* 정책성 도매자금 =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공급액

① 232억원이 1,885억원으로, 8.1배 승수효과

SVS 자금 232억원은 정부 자금, 지자체 기금, 공익재단·금융기관 자금, 민간 자조기금 등과 결합해 55개 프로그램·총 1,885억원 규모로 확장됐다. 프로그램 평균 만기는 6.6년, 평균 기대 수익률은 4.3%로 집계됐다.

- (자산배분) 시장수익률 추구 자산에 34.0%, 시장 대비 낮은 수익률 22.8%, 조달금리 추구 30.2%, 손실 감수 자산에 13.0% 할당
- (수익률) 전체 자산의 약 2/3(66.0%)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 영역에 의도적으로 배분하면서도, 종료된 8개 출연금 기반 프로그램은 연평균 7.4% 수익률을 기록해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
- (공급방식) 투자 52.5%(122억원, 23개)·융자 47.5%(110억원, 32개)로 균형을 이뤘고, 자금의 83.0%(44개 프로그램)는 중개기관을 통한 간접·협력 방식으로 집행
- (지역배분) 비수도권에 30.6%를 배분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자금 공급 노력

②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생태계, 23개 기관으로 다층화

SVS는 도매자금 공급기관이라는 정체성에 맞춰 23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금의 83.0%를 이들 기관을 통해 공급했다. 이 가운데 사업 초기부터 협력해 온 15개 전문 중개기관의 운용자산(AUM)은 2025년 기준 4,882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23.7% 성장했다.

- 전국 단위 펀드운용사부터 지역·업종에 뿌리를 둔 비영리 중개기관까지, 사회적 금융을 다루는 중개기관의 유형과 규모 다양화
- 2026년 6월 현재 SV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중개기관은 25개

③ 새로운 사회적 투자자 121곳 등장, 813억원 신규 동원

SVS가 공급한 자금에는 정부·지자체 중심의 정책성 도매자금(전체의 56.9%)뿐 아니라, 이 기간 새롭게 사회적 금융에 참여한 121곳(기관 77곳·개인 44인)의 자금도 결합됐다. 정책성 도매자금을 제외하고도 813억원의 신규 사회적 투자자 자금이 동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익법인, 금융기관, 기업재단, 지자체, 시민펀딩 등으로 투자자 저변이 확대됐고, 중개기관 자체 투입액도 101억원(자조기금 10.6억원 포함)에 달했다.

④ 원금의 37.5% 회수, 안정적 재무 성과

2025년 말 기준 30개 프로그램에서 회수가 시작돼 회수 원금 85.5억원(총 납입액의 37.5%), 회수 수익 6.2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자금이 모두 회수돼 종료된 11개 프로그램은 투자원금 48.1억원 대비 회수원금 47.6억원, 손실 확정액 0.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출연금 기반으로 진행된 8개 프로그램의 연평균 수익률은 7.4%였다.

SVS는 이번 보고서에서 향후 방향을 '금융 접근성 제고'에서 '임팩트 규모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융자 중심의 공급 방식을 넘어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투자 기제를 강화하고, 투자자·중개기관·수요·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다음 단계의 과제로 제시했다.

하승창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은 “지난 7년의 성과는 현장에서 금융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함께 고민했던 중개기관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켜온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조직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동행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SVS는 보고서 발행과 더불어 사회투자 도매기금 운용 성과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경제적 임팩트를 함께 나누는 '사회투자 도매기금 운용 성과 보고회 - 7년의 실험, 길을 열다'를 8월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출연·후원기관, 은행권 사회공헌, 중앙·지방 정부 관계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대표자, 사회연대경제 관계자, 언론사 등을 초청하여 진행했다.

「사회투자 도매기금 운용 성과보고서(2019-2025)」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웹사이트(svsfund.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소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연대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2019년 1월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18)에 따라 사회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도매자금 공급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인내자본을, 사회목적 프로젝트에 촉매자본을 공급하고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붙임1. 임팩트 보고서 표지 이미지>



<붙임2. 성과보고회 현장 사진>

